

한국농촌의 국제결혼의 특징

The Traits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Rural Korea

임형백*

Hyung Baek L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1) to thumbnail sketch of present general condition of foreigners and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2) to study special trend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rural Korea, particularly immigration connected with poverty, and (3) to focus on prospect of the problem of mixed-bloods, especially half blood children in rural Korea. Many of foreigners were treated discriminatingly, for example racial discrimination and wage discrimination. And discrimination to mixed-blood children will be happen in future. They ar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because of economic status and appearances. Half blood children have korean nationality because one of his parent is korean. When they grow up and reach their the age of puberty and the age of working, they will resist to discrimination in working and marriage. I had examined precedent studies, and class theory in general, and to suggest it is time to looking for way of reduce social cost and way of coexistence.

주요어(Key Words): 국제결혼(International marriage), 한국농촌(Rural Korea), 이주(Immigration)

*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 e-mail: emperor10131@hotmail.com

1. 연구의 목적

전통적으로 우리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을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수많은 전쟁과 이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공동체 의식으로 단결하여 이웃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통일국가를 발전시켜 온 민족”으로 믿어왔다.

학계에서는 ‘민족’이라는 개념과 용어자체가 근대의 산물이라는 데에는 큰 의견이 없다. Anderson(1983)은 민족을 근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역사적 구성물로 인식하고 있고, Hobsbawn(1991) 역시 민족을 근대의 산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이 근대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실재하던 언어·문화 공동체를 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족주의라는 이념에 맞추어 만들어진 ‘상상의 공동체’인지에 대하여는 논쟁이 멈추지 않고 있다. 학계의 논쟁은 차지하고 우리는 우리민족을 단일민족으로 규정하고 공동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강조하여 왔고 이는 우리역사의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농촌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과 이에 따라 농촌층각이 배우자로서 기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층각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한국농촌의 국제결혼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농촌의 국제결혼은 일반적인 국제결혼과는 달리 열악한 경제적 상황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현대에서 계급의 의미 중의 하나는 물질적 불평등을 일반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현대사회에서 불평등하게 보상받은 집단은 종종 ‘계급들’이라고 묘사된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은 어떤 형식적·법적 구별에 의해 특징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 집단은 자본주의 시장사회에서 자원을 둘러싼(물질적 의미의) 경쟁결과를 반영한다. ‘계급’은 소득(income)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이 보다 현대사회의 가장 공통적 기반은 직업이다(Crompton,

1993). 현대 산업사회에서 직업은 물질적 보상, 사회적 지위, '생활기회'의 수준 등 사회적 유리함과 불리함의 상호연결망을 대단히 강력하게 나타내는 지표이다(Blau and Duncan, 1967; Marsh, 1986).

본 연구는 한국농촌의 국제결혼을 거시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례를 고찰하는 것은 가능하나, 반면 조사대상의 한계로 인하여 거시적인 동향을 고찰하는 것은 어렵다. 또 이러한 면접을 통한 선행연구는 여러 차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국제결혼의 일반적인 현황을 고찰한다. 둘째, 한국농촌의 국제결혼은 이러한 일반적인 현황과는 달리, 열악한 경제적 상황(또는 빈곤)과 연계되어 있음을 고찰한다. 셋째, 한국농촌의 국제결혼과 수반되는 혼혈이 가져올 사회적 문제를 전망한다.

한편 본 연구는 한국농촌의 국제결혼을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수준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국제결혼에 대한 통계만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는 이유로 각 기관의 자료간에 조사항목, 수치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실증과 더불어 개연성도 포함되어 있다.

2. 한국농촌의 국제결혼

1.1 국내 외국인의 일반적 현황

한국농촌의 국제결혼을 고찰하기 이전에 국내 외국인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자. 이후 1992년 전체 인구의 0.15%에 불과하던 등록 외국인 인구는 1997년까지 매년 평균 25%씩 증가해 왔다. 1998년에는 IMF 영향으로 외국인 인구가 일시적으로 감소(9.7%)하기도 했지만, 1999년

이후 증가세를 다시 보이며 최근까지 10년간 연평균 약 18%씩 증가했다. 일시적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가 취해졌던 2003년에는 증가율이 51%에 달하기도 했다.

2005년에는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0개 지역에서 외국인 인구가 1%를 넘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용산구(3.75%), 중구(3.38%) 등을 비롯하여, 14개 자치구에서 외국인 비율이 1%를 넘어섰다. 기초자치단체는 아니지만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5.38%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이곳에 위치한 공단에 저임금노동력을 공급하는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 지역은 외국인 비율이 1%를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지역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수요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외국인 인구비가 1%가 넘는 기초자치단체 (2005년 기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서울특별시(14개)	용산(3.75), 중구(3.38), 금천(2.41), 종로(2.35), 영등포(2.32), 구로(1.86), 서대문(1.71), 강남(1.45), 서초(1.45), 성동(1.42), 마포(1.20), 동대문(1.17), 광진(1.08), 관악(1.03)
부산광역시(2개)	강서(2.97), 중구(1.10)
대구광역시(1개)	달성(1.46)
인천광역시(3개)	남동(2.58), 중구(2.55), 서구(2.15)
대전광역시(1개)	유성(1.12)
울산광역시(1개)	울주군(1.19)
강원도(없음)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경기도(18개)	부천(1.02), 평택(1.96), 동두천(2.35), 안산(2.92), 남양주(1.11), 오산(1.19), 시흥(3.15), 군포(1.05), 하남(1.26), 용인(1.40), 파주(2.52), 안성(1.74), 김포(3.92), 화성(5.29), 광주(3.28), 양주(4.56), 포천(5.12), 연천(1.36)
충청북도(3개)	진천(3.43), 음성(2.88), 청원(1.15)
충청남도(4개)	아산(2.01), 연기(1.31), 천안(1.31), 당진(1.06)
전라북도(없음)	-
전라남도(2개)	장성(1.09), 영암(1.08)
경상북도(7개)	칠곡(2.69), 성주(1.40), 고령(2.45), 군위(1.14), 구미(1.19), 영천(1.24), 경산(1.69)
경상남도(4개)	김해(1.30), 거제(1.70), 양산(1.23), 함안(1.61)
제주도(없음)	-

주: 광역자치단체명 옆의 괄호는 외국인인구1%초과 기초자치단체의 개수,
 기초자치단체명 옆의 괄호는 외국인인구비(%)
 자료: 통계청, 2005, 인구·가구통계 재구성; 서울신문, 2005.12.20.

2005년말 주민등록상 국내 외국인(합법적인 체류자)은 46만 9,183명이다. 이는 한국 전체인구 4,905만 2,988명의 0.96%에 달하는 규모이다. 여기에다 불법체류자까지 합할 경우 7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표 2> 국내 외국인 현황 (2005년말 기준)

지역	총인구(명) (2004년)	외국인인구(명) (2004년)	외국인비율(%) (2004년)	연평균증가율(%) (1992-2004년)
서울특별시	10,287,847	114,685	0.0111	11.818
부산광역시	3,684,153	17,808	0.0048	11.020
대구광역시	2,539,738	15,026	0.0059	15.854
인천광역시	2,610,715	31,898	0.0122	17.498
광주광역시	1,406,915	5,743	0.0048	16.119
대전광역시	1,450,750	7,279	0.0050	11.777
울산광역시	1,087,958	6,505	0.0059	10.659

지역	총인구(명) (2004년)	외국인인구(명) (2004년)	외국인비율(%) (2004년)	연평균증가율(%) (1992-2004년)
경기도	10,628,842	165,922	0.0156	29.562
강원도	1,528,640	7,265	0.0047	19.824
충청북도	1,500,610	11,665	0.0077	18.668
충청남도	1,972,553	19,147	0.0097	23.801
전라북도	1,915,674	8,932	0.0046	17.411
전라남도	1,994,011	7,819	0.0039	27.254
경상북도	2,718,613	22,696	0.0083	28.341
경상남도	3,168,734	24,920	0.0078	18.701
제주도	557,235	1,873	0.0033	13.935

자료: 법무부, 각년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1.2. 국내 국제결혼의 일반적 현황¹⁾

국내 외국인의 경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출신자들은 이미 입국 당시부터 체류목적이나 경제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위격차가 생긴다. 국내 외국인 대다수가 아시아권 출신이라는 점은 이들이 한국의 저임금노동시장에 의하여 유인되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실제로 국내 외국인 중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출신은 전체의 10%대에 머무르는 반면, 특히 아시아권 국가의 30-40대가 가장 많았다. 국적별로도 중국 국적 보유자가 42.4%였고 베트남(6.9%), 필리핀(6.5%)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들의 체류 목적별로는 비전문취업이 전체의 28%로 가장 높았고,

1) 본 연구에서는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국제결혼만을 다루고 있다. 학계에서 한국남성과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결혼 이민자'(한건수, 2006) 보다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보건복지부, 2005: 설동훈 외 2인, 2005; 김민정 외 3인, 2006; 이주연·김성일, 2006)이 보다 많이 사용되는 듯하다. 한편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외 12개 부처에서 공동발간한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에서는 '여성결혼 이민자'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 배우자(19%), 산업연수(19%), 연수취업(15.7%) 등의 순이었다. 등록 외국인의 연령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입국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연령을 조사한 결과 30대가 23.6%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1.2%, 20대가 20% 순이었다. 이에 비춰볼때 등록 외국인 역시 30~40대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Piper와 Roces(2003)가 지적하듯이 이주경로로서 노동과 결혼은 연결되어 있다. 국내 외국인의 경우에도 체류목적의 19%가 배우자라는 점은 이들의 이주가 결혼과도 연계될 개연성을 포함한다. 2005년 한국의 국제결혼은 2004년 보다 21.6% 늘어난 4만 3,121건으로, 같은 해 한국 전체결혼의 13.6%에 달하였다.

국제결혼에서 재혼의 비중도 2001년 32.3%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04년에는 45.3%에 달하였다(한건수, 2006). 또한 국제결혼의 상업화로 급증한 중개업체의 영업은 국제결혼의 대중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한건수·설동훈, 2005). 그러나 이러한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대부분은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결혼에 이룸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된다.

〈표 3〉 한국의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1990년-2004년) (단위: 건, %)

연도	총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19	1.0
1991	416,872	5,012	1.2	663	0.2	4,349	1.0
1992	419,774	5,534	1.3	2,057	0.5	3,477	0.8
1993	402,593	6,545	1.6	3,109	0.8	3,436	0.9
1994	393,121	6,616	1.7	3,072	0.8	3,544	0.9
1995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1996	434,911	15,946	3.7	12,647	2.9	3,299	0.8

연도	총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1990-2004	5,568,489	197,634	3.5	128,762	2.3	68,872	1.2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동태(혼인, 이혼), 설동훈 외 2인, 2005: 3.

1.3. 한국농촌의 국제결혼

오늘날 한국농촌에서 국제결혼의 증가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로 인하여 농촌총각이 결혼시장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임형백, 2005). 유전적으로 동질적인 집단내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는 한국인의 상당수가 한국농촌의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 전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촌과 비슷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계층의 경우에는, 농촌총각만큼 배우자선택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농촌만큼 국제결혼의 비율이 높지않다.

더구나 여기에다가 젊은층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농촌총각의 결혼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인구전출이 이루어지는 농촌에서는 배우자의 대상이 적어지고, 반면 인구전입이 이루어지는 도시에서는 교체기간

이 늦춰짐에 따라 사회 전체의 결혼연령도 상승한다.

1995년-2000년 기간동안 남한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68%로 매우 낮은 안정적인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 인구증가율은 3%를 상회하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동안 경기도에서는 약129만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 총인구증가수의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 기간동안 남한에서 증가된 인구는 거의 경기도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는 서울과 다른 지방에서 주로 경기도를 향하여 전입해왔음을 시사해준다. 반면에 전북과 전남은 여전히 인구 감소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이희연, 2005).

이러한 이유로 1990년대에 국제결혼이 급증하게 되는데, 특히 한국사회에서 주변화된 남성들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들과의 결혼이 주류를 이룬다. 결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총각과 중국의 조선족 처녀들과의 결혼이 그 시초가 되었다. 조선족과의 결혼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급증하여 1999년까지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중국조선족여성들이 4만명을 넘게 되었다(홍기혜, 2000). 1991년부터 2003년 사이 한국여성과 외국남성과의 혼인건수는 4,349건에서 6,444건으로 1.5배 증가한 반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혼인건수는 663건에서 19,214건으로 29배 증가하였다(김민정 외 3인, 2006). 조선족여성들은 언어와 문화, 혈연적(종족적) 배경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한국과 중국조선족 사회의 문화적 차이를 지나치게 간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적지 않은 부부갈등을 낳았다(윤형숙, 2004). 한편으로 조선족 여성 중에서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위장결혼을 하거나, 혹은 결혼후에 가정을 버리고 취업하는 사태가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1970년 이후 젊은층, 특히 여성들이 결혼을 꺼리는

풍조, 특히 '캐리어 우먼'을 중심으로 한 생애독신주의자의 증가, 적령기 인구의 상대적 감소, 여성인구의 도시집중, 농업과 농민에 대한 여성들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하여 농촌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하였다. 일본에서도 외국인신부는 경제적 환상을 가지고 일본에 정착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문화적 갈등, 농촌의 폐쇄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가져왔다(황달기, 1993). 한국에서도 이미 혼혈아동들의 상당수는 한글이해능력이 부족해 학교학습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에서는 외모로 인한 따돌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06).

이처럼 조선족 여성들의 사기결혼·위장결혼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보고되면서 국제결혼과정에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는 1998년의 국적법의 개정이다. 1998년 이전에는 한국남성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외국인신부는 혼인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8년 개정된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녀는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서 혼인을 유지한 후에야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는 조선족 여성들의 대안으로 1990년대 말부터 동남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다른 지역여성들과의 결혼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한국말을 몰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외모가 다르다는(인종이 다르다는 말로 표현되기도 함) '단점'이 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조선족과 달리)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장점이 부각되었다(윤형숙, 2004).

김민정 외 3인(2006)은 특히 한국남성이 동남아여성을 배우자로 고려하는 이유를 첫째 한국보다 가난하여 남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대가 한국 여성보다 낮고, 둘째 중국교포와 달리 한국말과 한국문화에 낯설어 가출할 수 없고, 셋째 더운 나라 또는 농촌출신이어서 성격이 좋고 유순하여 남편을 잘 따르고, 넷째 세계화 추세에 도움이 되는 영어권이거나(필리핀의 경우), 다섯째 한국의 부계문화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유교권

(베트남의 경우)이라고 보았다.

〈표 4〉에서 보면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결혼에서 외국인배우자의 국적이 다양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외모적으로 한국인과 확연히 구분되는 이러한 외국인배우자의 등장은 농촌에서의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의 촉발과 이슈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2005년 결혼한 농촌총각 중 35.7%(2,885명)가 외국인배우자를 맞았다.

〈표 4〉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계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100.0	21.8
중 국	3,586	7,001	7,041	13,373	18,527	20,635	66.2	11.4
베트남	95	134	476	1,403	2,462	5,822	18.7	136.5
일 본	1,131	976	959	1,242	1,224	1,255	4.0	2.5
필리핀	1,358	510	850	944	964	997	3.2	3.4
몽 골	77	118	195	318	504	561	1.8	11.3
우즈베키스탄	43	66	183	326	247	333	1.1	34.8
미 국	235	265	267	323	344	285	0.9	-17.2
태 국	270	185	330	346	326	270	0.9	-17.2
기 타	509	751	716	936	996	1,022	3.3	2.6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외 12개 부처, 2006.

한편 2005년 4월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표 5)에 따르면, 중국국적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상당수는 조선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중국국적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64.7%이고 이중 47.4%가 조선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약30%는 조선족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국적상으로는 국제결혼이지만 유전적으로는 민족내혼이므로 조선족과의 국제결혼은 혼혈문제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표 5〉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 (2005년 4월 기준)

국적	중국(조선족)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백분율(%)	64.7(47.4)	10.6	8.2	7.0	2.0	1.6

자료: 보건복지부, 2005.

그러나 한국농촌에서 이러한 국제결혼은 대부분이 열악한 경제적 상황 즉 빈곤과 연결된 이주경로로 작용함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하는 한국농촌의 남성의 경우 농촌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내국인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국제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모국에서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²⁾. 2005년 한국의 국제결혼율은 13.6%이었지만, 농촌의 국제결혼율은 35.7%에 이르고, 한국농촌의 국제결혼 이민자의 대부분이 한국보다 경제적 성장이 뒤진 국가출신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표 6〉에서 나타나듯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도 같이 농촌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의 국제결혼이 높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게 된다. 한편 이 두 지역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가 작게나마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역이었다는 점은, 이 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타 지역보다 못하여 인구를 배출하고 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김영수·변창욱(2006)이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³⁾)를 이용하여 지역발전

2) 국제결혼을 하는 농촌총가의 약20%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다.

정도를 종합평가한 연구에서도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라북도가 15위 전라남도가 16위로 나타나 이러한 개연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현상은 <표 7>을 보면 좀 더 명확히 나타난다.

<표 6>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역별 체류 현황(2005년 4월 말 기준) (단위: 세대, 명, %)

	세대수	국제결혼 이주여성	비율
전국	17,391	66,912	0.38
서울특별시	3,780,305	16,454	0.44
부산광역시	1,251,069	3,753	0.30
대구광역시	853,142	1,857	0.22
인천광역시	908,673	4,114	0.45
대전광역시	469,847	1,426	0.30
광주광역시	492,068	1,301	0.26
울산광역시	356,143	996	0.28
경기도	3,748,325	16,681	0.45
강원도	563,355	2,142	0.38
충청북도	534,231	2,176	0.41
충청남도	736,328	3,047	0.41
전라북도	675,145	2,955	0.44
전라남도	741,768	3,250	0.44
경상북도	985,475	2,892	0.29
경상남도	1,096,069	3,288	0.30
제주도	199,989	580	0.29

주: 구·시·군별 주민등록세대수는 2004년말 기준임. 비율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한 세대에 한명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것임.
 자료: 통계청, 2005, 법무부, 2005 자료재구성; 설동훈 외 2인, 2005: 11.

- 3) 김영수·변창욱(2006)의 지역발전지수는 지역경제력지수(가중치 72.6)와 주민활력 지수(가중치 27.4)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경제력지수는 소득수준, 혁신역량, 인력기반, 산업발전, SOC·지자체의 재정력의 5개 분야 15개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활력지수는 주거생활, 근로여건, 교육여건, 의료·복지, 문화·환경의 5개 분야 14개 하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의 2005년도 시·군·구별 혼인신고 현황에 의하면 <표 7>에서 나타나듯이 2005년 전국의 2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국제결혼율이 30%를 넘었다. 이중 종로구를 제외한 22개 지역이 농촌지역이었다. 이는 경제적 격차로 인하여 결혼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농촌총각들이 배우자를 외국에서 구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빈곤과 연결된 결혼이 이주경로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농촌의 비중이 높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서 국제결혼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전라북도는 2003년 7.8%에서 2005년 17.6%로, 전라남도는 2003년 8.9%에서 2005년 18.5%로 각각 늘어났다. 한편 2004년의 경우 국제결혼의 45.3%가 재혼이었다.

<표 7> 국제결혼율이 30%가 넘는 지역 (2005년 기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원도	영월
충청북도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충청남도	부여, 청양
전라북도	고창, 무주, 임실, 진안
전라남도	고흥, 구례, 보성, 진도, 함평, 해남
경상북도	군위, 예천, 의성
경상남도	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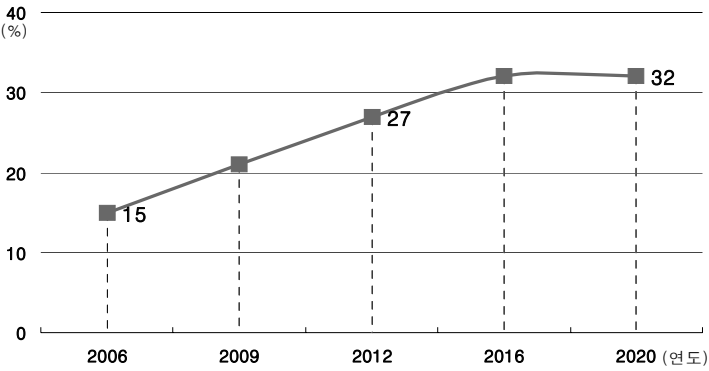
주: 혼인신고를 한 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 대법원, 2005, 시·군·구별 혼인신고 현황.

3. 한국농촌의 국제결혼과 문제점

한국농촌의 국제결혼은 그 출발점부터 대부분이 열악한 경제적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에 더하여 혼혈인구의 증가로 인한 갈등, 차별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이다. 심리적으로는 단일 민족을 당연시하여온 한국인의 정체성의 혼란도 고려되어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혼혈인구의 증가추이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고, 아직 이러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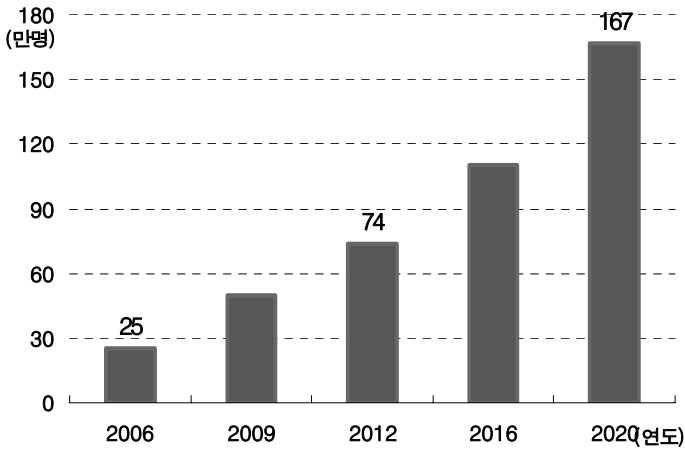
2005년 구성열은 모 일간지의 의뢰를 받아 현재 한국의 혼혈인구를 35,000⁴⁾여 명으로 가정하고, 한국의 국제결혼율도 매년 상승해 한국과 사회·경제 여건이 비슷한 대만(32%, 2003년) 수준에 이른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국의 혼혈인구가 2020년에는 16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추산에 의하면 2020년엔 20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21%)이 혼혈이 되고, 신생아 3명 중 1명(32%)이 혼혈아가 될 전망이다. 이는 지금의 강원도(152만 명)보다 큰 규모의 인구집단이 형성되는 셈이다. 여기에다 혼혈인구와 이해관계에 있는 한국인 부모까지 포함된다면 수자는 더 커진다.

4) 혼혈아동복지기관인 펄벅(Pearlsbuck)재단은 2005년 한국에는 약35,000여명의 혼혈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림 1〉 신생아 중 혼혈인구 비율

자료: 중앙일보, 2006.4.4.



〈그림 2〉 혼혈인구 증가 추이

자료: 중앙일보, 2006.4.4.

모든 복잡한 사회에는 어느 정도 물질적 그리고 상징적 보상의 불균등한 분배가 존재한다. 또 현존하고 있는 모든 경제적·사회적 불평등구조에는 사회적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를 설명하고 정당화시키는 어떤 종류의 의미체계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부와 권력에서의 불평등은 생산, 시장, 교육적, 조직적 자원에 대한 접근 등과 관계되어 있다(Crompton, 1993). 한 집단의 공통의 경제적 조건들과 공통의 경험이 조직화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Lockwood, 1958, 1989), 상황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적 연구에 있어서 유익한 분야로 남아있다(Crompton, 1993). 특히 IMF 이후로 한국에서 중산층의 몰락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는 사회적 문제로 자주 지적되어 왔다. 또 한국에서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격차도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현실에서 경제적 격차는 하나의 사회계층이 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도시와 농촌의 위상은 다르다.

문제는 현재의 경제적 격차에 의하여도 농촌과 도시주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현재와 같이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이 30%를 상회한다면 앞으로 농촌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3분의 1 가량은 혼혈이다.⁵⁾

4. 결 론

한국에서 농촌총각들은 결혼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인종적으로 동일한 집단내에서 경제적 격차 등으로 인하여 외면받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농촌의 국제결혼에서는 빈곤이 하나의 이주경로로서 작용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조선족 이외의 국적을 가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5) <표 5>에서 나타나듯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64.7%가 중국국적이고 중국국적자의 47.4%가 조선족이라고 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약30%는 인종적으로는 한국인이므로 국제결혼을 통하여 태어나는 아이들의 혼혈률은 이보다 낮다고 볼 수도 있다.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외모에서부터 확연히 구별되는 혼혈아의 탄생이 농촌지역에서 두드러질 것이다.

이는 경제적 구별(계급, 수입, 직업 등)에 외모라는 또하나의 구별적 변인(distinctive variable)이 추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격차가 완화되더라도 융화되기 어려운 새로운 계층의 출현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즉 농촌의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이와는 별개의 외모(새로운 인종)라는 새로운 구별적 변인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혼혈아들은 아직은 지역적으로 일부지역과 특히 농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 문화적 언어적 차이, 그리고 외모적 차이까지 갖고 태어난다. 경제적 격차는 해소될 수 있지만, 이러한 외모의 차이는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강하고 이민족과 동일한 공간에서 살아온 경험이 부족한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혼혈인들이 한국사회에서 전혀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지금은 이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20-30년이 지나 이들이 사회에서 취업적령기와 결혼적령기에 달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보다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고 갈등도 표면화 될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하여도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취업과 결혼 등에서 자신들이 받게 될 차별을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국적법상 한국인이며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의 한쪽 부모(부계)는 한국인이다. 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사회적으로 차별이 지속되고 누적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불만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민족은 분명히 인종과는 다르고, 민족주의의 가치마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판단과는 별개로 한국에서 국제결혼의 증가와 혼혈의 증가는 피할수 없는 추세이다. 이제는 '민족'과 '민족주의'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민족속에 다른 인종의 동화와 하위문화의 존재를 인정하는 현실적인 접근을 고려하여야 할 때이다. 논의의 출발점은 이미 우리 한국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들을 이방인으로 배척하는 것과, 반대로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 중, 과연 어느 것이 현실적이고 다가올 미래에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경기도교육청. (2006). 행정사무감사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외 12개 중앙부처 공동발간. (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대책.
-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영수, & 변창욱. (2006). *지역발전지수의 개발과 지역 간 발전격차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 설동훈, 김현미, &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In 최협 외 (Eds.),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pp. 321-349).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주연, & 김성일. (2006). 국제결혼이주여성가족의 지역사회와의 갈등양상 및 통합방향. *2006 전국사회학대회 자료집*, 241-243.
- 이희연. (2005). *인구학: 이구의 지리학적 이해*(제5판). 서울: 법문사.
- 임형백. (2005). 한국농촌계획의 전개와 농촌인구의 변화.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4), 199-224.
- 한건수. (2006). 농촌지역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한건수, & 설동훈. (2005).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홍기혜. (2000). *중국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황달기. (1993). 일본 농가후계자의 '국제결혼': 그 실상과 문제점. *일본학보*, 30, 467-491.
- Anderson, B. (1983). *Theory of Nationalism an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 Blau, P. M., & Duncan, O. D.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John Wiley.

- Crompton, R. (1993). *Class and Stratification: An Introduction to Current Debates*. Cambridge: Polity Press.
- Hobsbawn, E. (1991).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ckwood, D. (1958). *The Blackcoated Worker*. London: Allen & Unwin (2nd edn 1989).
- Marsh, C. (1986). Social Class and occupation. In R. Burgess (ed.), *Key Variables in Social Investig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Piper, N., & Roces, M. (2003). Introduction: Marriage and Migration in an Age of Globalization. In N. Piper and M. Roces (eds.), *Wife of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Rowman & Littlefield Pub.

<http://immigration.go.kr>.

<http://www.nso.go.kr>.

<http://www.pearlsbuck.or.kr>.

【 논문투고일: 2007. 05. 08
1차수정일: 2007. 07. 03
2차수정일: 2007. 11. 10
게재확정일: 2007. 12. 15 】